나와 우유

생산·제조·유통편의 말

내우유 좋은 우유	성인구(대성목장주)
우유는 내 노력의 결정	김유석(미당목장목부)
영양차여 굴러라	윤민호(우유차운전기사)
체질에 변화생겨	서병홍(기업주)
안과 밖의 마음의 변화	박성웅(J우유공장근무)
다른 회사 우유와 비교	신미애(B우유공장근무)
우리 성의를 알아주었으면	황신영(K우유실험소근무)
매출액 오르면 신나	김보연(D우유경리과근무)
변질방지에 최선	이운용(종로 대창상회주)
밝은 얼굴 대하면 저뻐	정영미(H유제품 판매원)

내우유 좋은 우유

成 仁 龜
〈大星牧場主〉

나는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규모도 크지 않으며 겨우 20여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다. 젖을 짜고 있는 큰 소가 15마리이고 송아지가 5마리 있다. 이 소들은 그야말로 내가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이룩한 재산이며 처음에 단 두마리로 시작한 목장이 이 정도로 되기까지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동안 배운것도 많다.

듣기 좋게 낙농이지 젖소를 기른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것도 경영이 성립할 정도로 우유를 나게 하는대는 나름대로 대단한 공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기르는 젖소를 한번도 「소」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물론 소니까 소인 것이지만 소 이기 전에 그들은 내 가족이며 분신이고 우리 가정 전체의 희망이며 생활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산하는 우유를 단순하게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

은 귀중한 생산물이며 또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귀중품 다루듯 한다.

아침마다 우유 수집차가 우유를 실고 가기 위해 목장에 온다. 그러면 나는 말못하는 무기질인 스테인리스에 든 우유를 소중하게 다룬다고 운전기사들이나 일꾼들이 모두 웃지만 이미 나에게는 습성으로 되어 있다.

흔히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장에서 우유를 짜서 수집차에 넘길때 물을 섞여서 양을 늘린다거나 또 한때는 유방염이 걸린 소의 우유를 팔아 보균우유가 문제라느니 하는 말성이 있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우유는 함유된 지방분의 양이 품질을 결정하는데 저지방유는 그만큼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게 된다. 따라서 목장주라면 누구나 고지방유를 출하 하려고하며 그래야 수입이 는다.

나는 언제나 우리 목장의 우유, 내가 생산한 우유가 가장 좋은 우유라고 자부하고 있다. 가족의 일원 같이 공들이고 정성들여 기른 젖소에서 짠 우유가 어찌 그 질이 남만 못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생산한 우유를 먹는 분들은 가장 좋은 우유를 먹게 되는 셈이다.

우유는 내 노력의 결정

金 裕 錫
〈美堂牧場牧夫〉

서부영화에서 보면 목장의 목동이나 목부들은 말을 타고 평원을 달리며 자유 분방하게 일하고 있지만 이곳 목장에서는 그런 낭만이나 그런것은 없다.

젖소는 비육우와 달라 기르기가 좀 힘들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유를 짜야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방목한채 내버려두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젖소는 건사하다 보면 서로 정이 들고 소들도 나를 알아보며 젖을 짜야할 시간이 되면 어슬렁 어슬렁 착유장을 찾아든다.

소는 순하고 순수하며 성내는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댓가를 바라지 않고 젖을 제공해 준다.

현재 내가 돌보고 있는 젖소는 모두 17마리인데 그중 7마리가 젖이 나오는 소이고 3마리는 방금 임신중이며 7마리는 송아지이다.

그래서 비교적 송아지가 많은 셈으로 그 만큼 장래성이 있는 목장이라고 하겠다.

이 목장 주인은 60이 넘은 노부부이기 때문에 내가 대부분의 일을 다 맡아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기 있는 소들에게는 더 없는 관리인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들은 실제로 나를 따르고 있다. 무심한듯한 소들이 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 진다.

우유를 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우유는 우유가 아니다. 첫째는 젖소 자신의 정(精)이며 다음은 그들을 건사하는 내 노력의 결정인 것이다」그래서 우유는 귀중한 것이다.

도시나 농촌에서 무심히 우유를 사서 마시는 사람들도 이런 내 심정을 이해하면서 마셔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매일아침 리어커에 우유통을 싣고 마을 어귀까지 우유통을 내다 놓으면 9시경에 우유차가 나와서 실어간다. 내가 바라는 바는 내가 생산한 우유가 일등유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낙농가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전국의 우유가 하나같이 일등유라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리하여 그 우유를 먹고 모두 건강하게 지내 주기를 빌면서 오늘도 소를 돌보고 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위해 본다.

營養車여 굴러라.

尹 敏 鎭
〈牛乳車運転技士〉

번쩍번쩍하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탱크로리차를 본 독자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탱크로리차라도 막걸리 운반차와 우유운반차가 있다. 나는 그 우유를 실어나르는 우유 탱크로리차의 운전기사가 된지 벌써 6년째이다. 처음에는 탱크로리차를 다룬다는 것이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막상 우유를 매일 같이 실어 나르다 보니 이제는 그 일이 다른 어떤 일 보다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탱크로리차는 대체로 액체를 한번에 많이 싣기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로 석유종류를 취급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 화학품이나 술, 우유등을 넣는 것이 있다. 석유류는 인화질 물질이라서 조심스럽고 그 만큼 위험율도 있는 것이지만 우유는 그런 위험성이란 전혀 없다.

한 차에 2 ㎘가 들어 가니까 드럼통으로 10드럼이 드는 크기이며 지방의 집유소에서 우유공장까지 실어가는 것이 내 임무이며 또 이 공장에서 저공장으로 원료유를 옮겨야할 때는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처럼 시유로 만들 원료가 분유공장으로 가게되면 그때는 이 시유가 그대로 마시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다시 한단계 가공하여 더 좋은 제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대로 위로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차 가득 우유를 싣고 가다가 목이 마르면 나도 길 가에 차를 세우고 우유 한봉을 사서 마신다.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웃는다.

「이렇게 한봉 사서 마시지 말고 저 탱크로리에서 한 말쯤 빼내어 마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고 탱크로리에서 목이 마르다고 빼 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줄 알면서 하는 생각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해 본다.

이 한 차의 우유는 수 많은 소에서 나온 것이며 그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홀히 다루기 어려운 생각도 드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운전대를 다시 힘주어 잡게 된다.

체질에 변화생겨

徐 丙 弘
〈企業經營主〉

나는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오고 설사를 했었다.

속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유를 먹어 버릇하지 않아 장내에 젖산균이 적어 우유를 분해 소화시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이 요법으로는 자꾸만 계속해서 우유를 마시면 젖산균이 생겨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었다.

일때문에 자연 식사 시간을 어기기 쉽고 그래서 간편하게 우유로 대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여 설사를 하더라도 한번 계속 먹어 보려고 생각한 끝에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았더니 세번 정도 설사를 한 뒤 부터는 자연스럽게 위장이 우유를 받아 들이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아예 매일 아침 우유 한 컵으로 조반을 대신하고 하오에도 3～4시 경에 다시 우유 한봉을 마시는 것이 습성으로 되어 버렸다.

이렇게 식성과 체질이 변하고 부터 나는 「우유라는 식품이 과연 좋기는 좋구나」하고 생각

하게 되었으며 아침에 기침하면 우선 현관 앞에 배달된 우유봉지를 내가 집안으로 들여 놓는 일부터가 일과가 되었다.

기업주인 내가 우유를 회사에서 매일 먹게되니까 자연 회사 사원들도 커피보다는 우유를 즐겨 먹게 되었고 그결과 모두 몸에 좋은 효과가 있는것 같다고 해서 웃은 일이 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이전에 내가 그렇던 것과 같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 때문에 우유 먹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누구에게나 용기(?)를 내어 사흘만 계속해서 마셔 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리고 술이나 커피를 줄이고 우유 먹는 버릇을 기르라고 종용하고 있다. 내이 권유를 받아 들인 친구들은 하나 같이 체질이 개선 되었는지 원기 왕성하고 원기가 왕성하여 자연 사업도 잘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우유 먹기를 주저하는 분 들이 있으면 자체에 결심하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안과 밖의 마음의 변화

朴 成 雄
〈J우유공장근무〉

우유공장에서 일하게 된지도 어느듯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내가 맡은 부분은 카튼 박스에 채워져 나오는 우유를 프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수송차에 싣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드는 부문이다. 자동기계에서 쉴 사이 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유를 재 빨리 집어다상자에 담고 40개씩 채워서 쌓아 놓으면 냉동 수송차가 꽁무니를 들이대고 그러면 차에다 옮겨 실어준다.

한차 가득 실으면 차는 소비자의 대리점이나 가게, 슈퍼등을 향하여 제 각기 정해진 목적지로 달려 간다.

처음 일을 배울때는 다섯개씩 들어내는 그 작업이 서툴러 가끔 우유 봉지를 떨어뜨려 못쓰게 한일 도 있었으나 지금은 척하고 집으면 틀림 없이 다섯개가 집어 진다. 그리하여 거의 눈을 감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와있으며 일이 하루 종일 좀 단조롭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바쁘다 보니 잡념이 생기지 않고 직장의 후생제도가 좋아 살아 가는데는 걱정이 없다.

흔히 우유공장에 다닌다니까 우유를 물먹듯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알기 쉽지만 실제로 일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물론 회사 안에서 점심에나 야식때 우유가 나오고 마시는데로 두지만 안에서는 우유가 귀한 줄도 모르고 별로 많이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같이 우유가운데 묻혀 사니까 그런 모양이고 우유라면 어디에나 흔히 있는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일단 밖에 나오면 또 마음이 달라진다. 집에 돌아 오면 역시 한봉의 우유는 귀한 존재이고. 따로 그것을 돈을 내고 사서 마셔보면 그 맛이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란 안에서와 밖에서가 이렇게 다른 것일까하고 생각해 보면서 혼자서 쓴웃음을 짓기도한다. 그래서 사람이란 역시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로 심리가 변하며 심리란 또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언제부터 우유회사 일꾼이 되었나 싶다.

다른회사우유와 비교

申 美 愛
〈B우유공장근무〉

내가 이곳 B우유 공장에 온지는 이제 겨우 1

년이 좀 넘었다. 내 부서는 자동 포장기 옆에서 빈 카톤박스를 넣고 포장 되어 나오는 카톤박스를 지켜보아 포장 불량품을 가려 내는 일을 한다.

자동기계는 매우 정확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 내지만 그래도 가끔 포장이 잘 못된것이 나오는 수가 있고 혹 기계가 고장난 경우는 포장불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런 때는 즉시 반장에게 알리고 기계를 정지 시킨뒤 수리 하도록 하는데 하루일이 신경을 긴장 시킨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숙련 되기 전에는 무척 피로해 진다.

그러나 숙련되고 나면 자동기계에서 나오는 모양만 보고도 그것이 포장이 잘 된것인지 불량품인지를 당장 식별하게 된다. 불량품을 모아서 버리게 되기 때문에 포장불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회사로서는 손해가 되는 일이며 혹 포장 불량품이 시중에 그대로 나가면 일찍 변질하기 쉽고 변질된 우유를 잘 못 마시면 배탈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 신경을 모아 식별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소비자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적어도 우리회사 제품만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우유라고 자부하고 싶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회사 밖에 나와서 다른 회사 우유를 대하거나 마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회사것과 비교하게 되고 그 질을 저울질하게 된다.

참 이상한 심리라는 생각이지만 역시 사람이란 다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또 한가지 이상한 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회사 우유를 비방하거나 맛이 좋지 않다고 하면 공연히 화가 나고 대들고 싶어진다. 만일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한사코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런 때는 모두 내 성격이 대단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고 있는 우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우유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성의를 알아 주었으면

黃 信 英
〈K우유실험실근무〉

나는 우유와 더불어 살고 있다. 매일 매일의 우유와 씨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집유소에서 보내오는 원유를 공장의 처리조에 넣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유질을 검사하고 불순물의 함유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처리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 되었는가를 체크하며 마지막으로 시중으로 나가는 제품된 시유의 시료를 다시 한번 채취하여 검사하고 체크하여 합격품에 한해 시중에 내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것은 벌써 5년이 되고 있다. 아침이면 실험실에 출근하여 실험복을 입는데서 부터 시작되고 지금은 각종 정밀 자동 디지탈 계측기가 들어와 검사도 매우 쉬워졌고 그 만큼 정확해졌다.

흔히 제품화 된 우유가 어떤 조작에 의해 좋지 않다는 설도 있고 얼마 전에는 유방염에 걸린 소의 우유가 섞여 위생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묻는 다면 결코 그렇지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백히 해 두고 싶은 것이다.

우리들 실험실 직원들은 그야말로 진지한 태도로 우유 가운데 혹 섞였을 지도 모르는 100만분지 일의 불순물을찾 아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 내용을 모르기 쉽다. 실험실 생활이란 매일이 똑같은 일의 되풀이되기 때문에 자칫 실증이 나기 쉽고 조작이 틀에 박혀 소홀해 질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찰나에 새 시료가 들어오고 혹 거기에 어떤 불

량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생각하면 다시 긴장되기 때문에 시험은 언제나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만일 이 실험이 조금이라도 잘 못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또 결함이 없는 것을 잘못 판단하여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때는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들의 성의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해가 있기 바라는 바이다.

매출액 오르면 신나

金 寶 妍
〈D우유경리과근무〉

우유회사의 경리과도 여느 다른 회사의 경리과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우리 회사의 제품이 우유이기 때문에 들어 오는 돈은 그것이 곧 우유가 팔려 얻은 돈이며 나가는 돈은 각 목장에서 보내오는 원유의 대금이 가장 많고 다음은 우유 가공단계의 여러가지 자재 값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의 활동이 하나로 종합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꼭 있어야할 과정과 단계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중요성은 다 같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내가 맡은 일은 나가는 돈과 들어 오는 돈을 잘 관리하여 회계상 착오가 없도록 하는 일이지만 그중에도 시중으로 나간 우리회사 우유가 많이 팔려 그 대금이 잘 들어 올 때는 공연히 나도 신이 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기와 신임을 얻고 있다고 생각되어 무척 흐뭇한 심정이 된다.

또 한편은 목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한번 흐뭇하다.

그러나 똑 같은 양을 납품하고도 우유의 질이 낮아 찾아가는 돈이 다른분에 비해 적을 때는 내 마음이 공연히 안타까워지고 미안한 마음도 든다. 젖소를 길러 그 젖을 짜서 납품 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또 그 질이 마음대로 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좀더 정성을 쏟고 젖소에게 먹이는 사료를 조금만 더 유념했더라면 모두 일등유 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제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원유값을 내 줄 때는 되도록 원유값이 비싸 많은 소득을 얻게 해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되도록 싸게 우유를 공급했으면 참 좋겠다는 두가지 상반된 생각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런 내 심정을 전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물가가 안정되어 값이 오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변질방지에 최선

李 龍 雲
〈종로구대창상회주〉

뒷골목 모퉁이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나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식료품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과자류, 라면류를 비롯해 우유제품들을 팔고 있다. 지금이야 냉장고도 발달되어 소규모 가게용 쇼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으며 또 제품자체도 잘 포장되어 냉동운반차에 실려 오기 때문에 상품의 보존 상태가 좋고 또 두고 파는데 편하게 되었지만 몇해전만 하더라도 실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빙과류와 우유제품의 보존이었다. 소위 아이스크림 통이라고 2중으로 된 용기에 아이스크림류를 넣고 드라이 아이스를 채워서 냉장 보관 하지만 드라

이 아이스는 하루를 견디기 어려워 간혹 녹거나 변질 되는 수가 있어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지금은 냉장 쇼케이스가 있어 거기다 넣어 두면 최소 2 일정도는 무난히 보관되고 냉동 쇼케이스에는 아이스크림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 졌다.

그런데 우유는 먼저 들어 온것부터 팔고 되도록 보존 기간이 지난것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간혹 여러개가 있는 밑창에 쌓였던 것이 나도 모르게 남아 있다가 손님에게 넘어 가는 일이 있는데 이런 때는 손님이 지적하면 당장 바꾸어 줄 뿐 아니라 미안하기 짝이 없다. 또 여러 우유회사에서 제각기 자기 회사 제품을 더 많이 놓아 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내 처지로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것에 주안을 둘 수 밖에 없어 손님이 찾는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면 안타깝다.

그러나 우유의 경우는 어느 회사 것이나 다 비슷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제품회사들이 너무 과당한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열경쟁은 결국 생산자 자신들에게 이익 보다는 광고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관계로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비싼 상품을 공급하게 되는 영향도 있을것 같다.

또한 손님들도 선전을 믿고 특정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동소이한 점을 이해하여 신선한 것이면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밝은얼굴 대하면 기뻐

鄭 永 美
〈H유제품판매원〉

나는 우유제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구역내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젖산균 발효유를 배달하고 있다. 내 구역에는 아파트도 있고 독립주택도 있으며 대개 유제품을 고정으로 배달해 먹고 있는 가정은 대개 화목하고 온정이 넘치는 가정들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부저를 울리고 현관에 들어서면 그 댁 어린이들이

「야! 아줌마 왔다」라고 뛰어 나와 하나씩 쥐고 뛰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 흐뭇할 수 가 없다. 광고 문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진실로 건강과 행복을 배달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하며 여러 가정의 행운을 빌어 마지 않는 심정이 간절하다.

반대로 어떤 손님댁에서 갑자기 우환이 생겼다거나 어떤 비운을 당하게되면 나 자신도 기분이 침체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그런 일들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빌고 있다.

이렇게 매일 집집을 찾아 다니다 보면 어느집에는 어린이가 몇명있고 그 댁 주부는 어떤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친해지고 정이드는 일도 있으며 서로 여러가지 정보를 교환 하기도하며 때로는 음식 대접을 받는 일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따지고 보면 우유제품 유통의 제1선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가 맞닿는 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호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이런 점들 회사에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우유를 통한 건강의 비결 같은 것도 알게 되며 우리 회사 제품을 매일 마시면서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해 가는 소비자의 얼굴을 대할 때 나로서는 무척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나라 가정도 많이 살기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가정이든 우유를 먹지 않는 집이 없고 그래서 대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고 있다. 따라서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소비자 대로 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

나와 우유

소비자편의 변

바쁜때에 제격	임 종 훈 (회사원)
오후 4 시에 우유한잔	이 임 선 (회사원)
산책길의 일과	강 준 희 (노 인)
혼자마시는 우유의 맛	이 윤 희 (노 인)
우유에 맞지 않는 체질	윤 영 호 (인쇄소공원)
목장에서 겪은 일	이 금 주 (피복사공원)
어린것들을 위하여	진 영 숙 (주 부)
하루 세봉을 거뜬히	안 정 태 (J중학교 2 년)
우리들은 모두아기	손 정 애 (S 여고 3 년)
주당들의 이유식	양 무 성 (K대경제학과)

바쁜때에 제격

林 鍾 勳
(會 社 員)

말단사원 신세인 나는 언제나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다. 특히 아침은 교통지옥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찍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꽁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서둘러 뛰어야 하니까 조반을 설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우유한봉지로 조반을 대신하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그런지가 한참되다 보니 이제는 아주 아침밥은 우유가 상식으로 되어 버렸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아주 습성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우유도 오래 먹다 보면 그 맛이 미묘한 변화만 있어도 당장 알게된다. 만든지가 오래 된 우유, 무엇인가 잡것이 섞인듯한 우유, 너무 묽어 싱거운 우유등을 용하게 구별한다. 새벽에 배달된 신선하고 고소한 우유야말로 나에게는 더 없이 귀중한 양식이다.

나는 특히 흰 우유를 좋아한다.

초코 우유니, 딸기 우유니하는 가공우유는 어쩐지 비위에 맞지 않아 좀채 먹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런 괴벽때문에 언제나 우유를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실증도 내지 않고 매일 같이 잘도 우유를 마신다는 생각도 들면서 커서도 어릴적 젖맛을 못잊어 버리는 탓이라고도 생각하면서 혼자 웃는적도 있다.

우유는 뭐니뭐니 해도 소금을 살짝 집어 넣어 마셔야 제맛이 난다. 설탕을 넣어서는 제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지금은 우유가 흔하게 나돌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고 살기 편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우유는 병에넣어 새벽에 배달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카톤팩이나 비닐봉지에 넣어져 이웃 가게에까지 배달되면 우리는 거기서 사 먹으면 된다. 수송수단의 발달과 저장시설의 진보로 신선한 우유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며 우유값이 뛰거나 생산이 줄어 귀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나는 언제까지나 아침밥 대신 우유 한봉지로 살아가련다.

오후 4 시의 우유한잔

李 任 善
(會 社 員)

우리들의 회사근무는 하루 종일 잔손을 놀리거나 신경을 써야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타자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손끝에 집중해야 하며, 전표나 서류를 분류하고 맞추는 일은 더욱 신경을 피로하게 만든다 그래서 한나절이 지나고 오후도 3 시가 지나면 피로가전신을 엄습하게 된다.

그러면 눈짓으로 동료를 불러내어 휴게실이나 매점에 가서 한잔의 우유를 마시며 서로 격의없는 잡담을 늘어 놓게 된다. 때로는 초코릿 같은 단것을 먹기도 한다.

상사나 남자직원들은 여직원들이 군것질을 잘한다고 흉을 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 이 오후 한때의 짧은 휴식과 한잔의 우유, 한조각의 초코릿은 싸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각인것이다.

그래서 만일 휴게실이나 매점에 우유가 떨어지고 없는 날이면 그 섭섭한 심정은 무어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 그때의 우유가 저장기간이 지난 것이라든가 맛이 이상한 것이면 화가 치밀고 짜증이 난다.

우유를 마실 때는 우유 한가지만 먹기 보다는 비스켓이나 크랙커 같은 가벼운 식품이 있으면 더욱 좋다. 나는 보통 3개의 비스켓과 우유 한잔이면 피로가 풀어진다. 이 경우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친구와의 삽담이다. 이 잡담이 결들여지지 않으면 모처럼의 비스켓과 우유의 맛이 반으로 줄어든다.

잡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때로는 상사나 남자 직원의 흉을 보는 경우도 있고 신문에서 본 사회면 기사가 화제에 오르기도하며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 평도 나오고 가수나 탈렌트의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서 서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하루 일을 무난히 해낸 즐거움을 맛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산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월부 전표로 신발이나 새 옷을 사는 이야기에 꽃이 피기도한다.

만일 새 구두를 신거나 새 옷을 입게되면 그날은 착복식이나 착화식으로 친구들의 우유값을 부담하기도 한다. 역시 직장은 이런 부담 없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게 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이런 휴식을 취하는 즐거움을 위해 목장의 젖소들은 더 좋은 우유를 더 많이 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유 가공 업자들은 좀 더 맛있고 신선한 우유를 만들어 주기 바라며 매점 아

줌마는 우유가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산책길의 일과

姜 俊 熙
(노 인)

인생도 나이 70을 넘고 보면 세상의 일보다는 자신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벌써 2년째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있다. 아침 일찍은 무리여서 아침밥을 먹은 뒤 천천히 출발하여 1.5㎞쯤 떨어진 선바위골 중턱의 약수터에 가서 두되쯤 되는 플라스틱 통에 약수를 길어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일과처럼 되고 있다.

그런데 돌아 오는 길가에 자리한 작은 가게에서 늘 우유 한봉을 사서 마신다. 늦은 봄부터 여름동안은 찬 우유를 그대로 마시지만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따끈하게 데운 우유를 마신다. 그집에는 환갑 지난지 아직 얼마 안되는 노파가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나는 우유를 천천히 마시면서 그 할머니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때로는 우유를 두개 사서 그 할머니와 함께마시는 때도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한사코 사양하기 때문에 함께 마시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조반을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이때 마시는 우유 맛은 그렇게 고소하고 맛이 있다. 그래서 우유 마시는 것도 일과의 하나이며 혹시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그 할머니가 「어디 병이라도 났느냐」고 걱정스레 묻는다.

이렇게 매일 우유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약수를 길러 오고 그때문에 산책을 하며 할머니 가게에서 우유한봉을 사서 마시는 일과가 계속 되는 한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유 한잔의 뜻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건강을 입증한다는 심정에서 우유를 마시기 위해 산책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때인가 감기 기운이 있어 산책을 나가지 못한 적이 있다. 이틀을 거듭 쉬게 되었는데 이틀째는 손자녀석을 시켜 가족 몰래 산 아래 할머니 가게에서 우유한봉을 사다가 마신 적이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우유를 좋아 하는지 아니면 그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었지만 요는 내 건강이 아쉬워 취한 행동 같다.

혼자마시는 우유의 맛

李 允 善
(노 인)

나는 아침 나절에는 혼자서 집을 지키는 일이 많다. 손녀가 셋 손자가 하나인데 모두 학교에 가고 아들 내외도 각기 직장에 나가고 나면 집안은 조용해 지고 나 혼자 남게 된다.

우리집에는 매일 아침 5～6봉의 우유가 배달 되어 오며 조반때 먹고 가는 아이도 있지만 그냥 두고 나가는 것도 있어 언제나 냉장고에는 우유가 들어 있다.

조용한 집안에서 조용히 나 혼자 우유를 마시면서 내 집과 내 아들 손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에 많이 먹지 못하면서 자주 시장기가 드는 것이 약점이다. 그렇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챙기기도 귀치않아 대개 그대로 참고 지나는데 이런 때 우유는 아주 간편하고 좋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들었고 집을 지키는 무료한 시간에는 우유먹는 재미로 한때를 보낸다.

오후가 되면 막내 손자녀석이 먼저 학교에서 돌아 오면 집에 들어서자 말자 냉장고 문을 열고 대번에 우유부터 꺼내 한 봉 마시는 것을 보면 참 대견 스럽게도 느껴지며 어떤 때 우유가 모자라 거나 배달이 되지 않아 우유가 없는 날이면 공연히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런데 입이란 참 간사하다.

상표가 다른 우유를 먹게 되면 단박에 그 맛이 다른 것을 알수 있으며 배달되는 시유를 마시다가 분유 탄것을 마셔 보면 또 그 맛이 전혀 다른것을 알게 된다. 어떤 것이 더 좋고안 좋고를 구별할 줄은 모르지만 입안에 도는 향기와 혀 끝에 닿는 맛은 종류에 따라 알게 된다.

또 하루 얼마나 먹으면 된다는 기준량 같은 것은 물론 없겠지만 아무튼 나 같은 늙은 이에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식품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일찍 가버린 영감과 함께 마시지 못하는것이 못내 서운하다.

우유에 맞지않는 체질

尹 永 昊
(대영인쇄소공원)

이상하게도 나는 우유를 먹지 못한다.

동료 공원들이 툭하면 우유와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보면 마음 한구석으로 부럽기만하다. 나는 우유를 마시면 1～2 시간 내에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다. 처음에는 우유가 변질 된 것이라는 생각에 식전에 배달된 신선한 것을 먹어 보아도 결과는 같았다. 혹 찬것을 먹은 때문인가 싶어 데워 먹어 보아도 결과는 같았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렇지만 몇번 지나면 그렇지 않다며 설사가 나더라도 계속 먹어 보라고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찾아 가며 습성을 기를 용기가 나지 않아 아주 우유를 마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유 이외의 가공 우유는 또 묘하게도 아무리 먹어도 별 탈이 없다.

요구르트는 먹을 수록 맛이 있으며 아무 탈이 없고 분유 끓인 것도 아주 잘 먹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가공품 가운데는 딸기 우유는 별 일이 없는데 다른 것은 역시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 체질 탓인 모양인데 어느 책에서 본 대로 아마도 내 체내에는 젖산균이 남보다 무척 적으며 그것이 생기고 자랄 환경이 나쁜 모양이라고 혼자서 속으로 치부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지 않는 한 별일이 없다. 그것은 아이스크림 자체의 차가운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내 위장을 찬 음식을 그대로 소화 시키는 능력이 아마 모자라는 모양이고 이것도 어쩌면 우유의 소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지 않을까하는 혼자 생각도 해 본다.

공장에서 야식을 줄 때면 동료들은 대개 우유와 빵으로 때우는데 나는 꼭 국수나 라면을 시켜 먹으며 빵을 먹게되면 사이다나 콜라를 마신다. 이것을 보고 동료들은 「우유도 못 먹는 팔푼이」라고 놀려 대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설사와 배알이를 참아 가면서 위장을 길들일 용기가 나지 않아 동료들을 부러워 해 본 적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지기 싫어 「우리 조상들은 우유 안마시고도 건강하게 잘만 살았다」고 혼자 중얼거려 본 적도 있다.

목장에서 겪은 일

李 今 珠
〈신광피복사공원〉

나는 우유를 참 좋아한다. 우선 마시 기가 편하고 마시고 나면 든든하며 값도 비싸지 않기때문이다. 공장의 일이 바쁘면 나는 흔히 우유를

한번에 2봉가량 마시고 그대로 지난다. 밥과 우유를 놓고 어느편을 먹고 지내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우유를 택할 것이다.

그런 내가 우유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큰 고생을 한 적이 있다.

지난 늦은 봄, 친구들과 들놀이를 겸해 근교의 목장에 갔을 때였다. 마침 그곳 목부 아저씨 집 마당에 양동이에 절반 가량 우유를 짜 놓은 것이 있었다. 이것을 본 나는 군침이 돌아

「아저씨 이 우유 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직 젊은 목부 아저씨가

「초산한 젖소의 우유라서 버릴 것입니다. 너무진하기 때문에 마시면 설사해요. 그리고 아직 소독도 안했구요」

이 대답을 듣고

「버릴 것이면 내가 좀 마셔도 되겠네요. 나는 위장이 튼튼하여 설사 같은 거 안해요」

라고 말하면서 말릴 사이도 없이 마루에 있는 컵을 가져다 3컵이나 마셨다. 공짜라면 이 기회에 실컷 마시려고……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1시간 가량 뒤부터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설사가 시작 되어 그날 하루 종일 시달렸다.

친구들은 공짜 좋아 하다가 벌을 받았다고 웃으면서도 약을 사준다.

배를 문지러 준다하면서 수선을 피웠다. 젊고 건강한 나는 다음 날에는 거뜬했지만 정말 혼났던 것이다.

나중에 전문인 분에게 물으니 젖소가 송아지를 출산하고 곧 짜내게 된 첫 우유를 초유(初乳라고 하며 특히 초산인 젖소의 초유는 지방분이 많아 대개 한두번은 짜서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공짜라고 무턱대고 먹었으니 성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뒤 역시 먹는 것이란 제대로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우유를 사면 꼭 제조 날짜를 확인해 보고 마신다.

어린것들을 위하여

陳 英 淑
(주 부)

지난 여름은 몹시 더운 날이 계속되었었다. 그러니 자연 물을 많이 찾게 되고 물을 마시기 보다는 우유를 사두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여름 한철은 배달량을 갑절로 늘려 언제나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지 않게 신경을 썼다.

박봉인 봉급생활자의 가계를 꾸려 가는 일은 무척 신경쓰이는 것이지만 적어도 여름방학 때 어린것들의 건강을 위해 우유나마 원할 때 마실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 내 심정이라 그렇게 했었고 아이들도 즐겨 마셔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 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은데 평소에 배달된 우유를 다 마시고도 모자라게 되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할수 없이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사다가 먹었는데 내가 가지 않고 국민학교 4학년 짜리 막내 여자아이가 한모금 마시더니

「엄마 우유 맛이 이상해—」라고 하면서 마시기를 중지했다.

놀란 나는 얼른 봉지에 찍힌 날짜를 보았다. 그랬더니 이미 5일이전에 만든 것이 판명 되었다.

정말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 가게에 가지고 갔더니 주인의 말은

「요즘은 더위 때문에 우유는 없어서 못 팔며 자기들로서는 받아서 묵힌 적이 없다. 아마 회사에서 잘못 했을 것이다」고 발뺌을 하면서 바꾸어 줄 염도 내지 않았다.

나도 이웃간에 우유 한봉을 놓고 왈가왈부 하기 싫어 그냥 넘겼으며 우유회사에 항의 할까도 생각 했었지만 이래 저래 참고 지나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글을 쓰는 때를 빌어 나 보고 말하라면 누구의 착오거나 잘못이든 간에 적어도 식품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당장 바꾸어 줄 수 있는 완전한 체제를 갖추어 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어린것을 위하는 어른들의 책임이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세봉은 거뜬히

安 正 泰
〈J중학 2 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엌에 들어가 우유부터 한 봉 쭉 마신다. 밤새 비었던 위에 차거운 우유가 들어가는 그 기분이란 아주 삼삼하다.

겨울에는 어머니가 미리 데워 두었다가 주기 때문에 따끈한 우유 맛은 또한 삼삼하다.

점심은 대개 도시락을 먹지만 물대신에 학교 매점에서 우유를 한봉 사서 마신다.

그 기분 또한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이다.

다음은 학교가 파해서 집에 돌아 오면 냉장고 문을 열고 또 우유 한봉을 쭉 마신다.

이렇게 하루 세끼 끼니와 마찬가지로 3 봉의 우유를 늘 먹고 있으니 한창 자랄 나이에 식성도 참 좋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래로 누이동생이 하나 있다. 그애는 아직 국민학교 이기 때문에 대개 나보다 학교가 먼저 파하게 되어 집에 돌아 오는 시간도 나보다 빠르다. 그 때문에 종종 내가 마셔야할 냉장고 안의 우유가 그애에게 새치기 당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어머님은 우리들을 생각하여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 주시지만 어떤 이유로 공급이 달리게 되면 내 차례에서 끊겨 최종 소비자인 나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때 혹 동생과 다투기라도 하면 중「학생인 오래비가 참으라」고 하는데 그건 좀 모순인 것 같다. 선착순 보다는 장유유서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보다 한국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개 동생을 생각해 내가 참는다.

우리들은 모두 아기

孫 貞 愛
〈S여고 3 년〉

일반적으로 여고생들은 군것질을 꽤 많이 하는 편이다. 떡볶기를 비롯해 찐빵, 호떡 등 레파토리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군것질에 약방의 감초처럼 꼭 끼이는 것은 우유이다. 우유는 이미 하도 보편화 되어서 군것질꺼리의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다. 누구나 일상으로 마셔대니까 별로 신기할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우유를 많이 먹는 아이를「아가야!」라고 부른다.

아기처럼 젖만 먹고 산다는 뜻이다. 이런 호칭으로 부르는 친구는 특별히 더 많이 우유를 마시는 경우이고 보통 누구나 다 마시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들 모두가「아기」인 셈이다.

현재 고3 인 나로서는 어린 시절부터 우유를 먹어 왔기 때문에 별로 신기할 것도 없고 귀한 것이 아니지만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6·25 동란을 전후해서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유는 귀중품 취급을 받았던 모양이며 분유를 물에 타

서 먹는 것이 고작이었던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의 아기들이나 학생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세대 만세라고 부르고 싶다.

고3이 되면서부터 수험공부가 시작되어 밤낮으로 강행군을 하다 보면 자연 우유를 마시는 횟수가 늘게 된다. 그것은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씹어 먹는 자체가 고역이라서 자연 유동식인 우유가 가장 손쉬우며 그러다 보면 붕어처럼 물만 먹고 사는 꼴이고 아무리 우유가 완전한 자연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덩치가 있으니 자칫 영양이 모자라기 쉬워 어떤 때는 걱정도 된다.

꿈도 많고 성벽도 심한 여고시절이 이렇게 독서실에서 참고서와 씨름을 하면서 세월을 지세다 보면 어떤 때는 시험지옥의 현실이 몹시 불만스럽기도 한 것이다.

요즘은 성적발표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낮시간이면 매점에서 우유 한봉씩을 사 들고 와 참새떼처럼 재잘거리면서 약도 독도 안되는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주당들의 이유식

梁 武 星
〈K대학경제학과〉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여러 모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많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의 그 피나는 수험공부에 비해 대학에서의 수업은 진짜 맥 빠지게 만든다. 이런 자리 한 자리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 썼던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오유월 천둥은 그렇게도 울부짖었다」

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정에서는 자연 술을 마시게 된다. 대학은 중등학교와 달리 풍기에 대한 단속이 없어지니까 해방된 기분과 성년이라는 마음이 앞서 누구나 술을 배우게 되고 찻집에 자주 출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고3 때까지 시험공부와 더불어 그렇게도 마시던 우유와는 자연 거리가 멀어진다. 이 과정을 말한다면 우유는 우리들에게 있어 주당이 되기 전의 이유식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대학에 들어 오면서 젖이 떨어진 셈이 되는 것이다.

주당이 되었다고 우유를 전혀 마시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후 늦게 강의가 있어 쉬는 시간이 길면 자연 발걸음은 매점을 향하고 거기서는 쉬운대로 우유한봉씩을 빨게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젖떨어진 뒤에도 젖먹던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향수를 마시는 것과 흡사하다.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라는 문제에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되는데 우유의 공급이 이만큼 되어 누구에게나 원할 때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며 그런 뜻에서 낙농은 더 육성하여 공급을 늘여야겠다고 생각하기도한다.

만일 지금 시점에서 공급이 달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것잡을 수 없는 디렘마에 빠지게 될것이며 우리들 같은 이유기의 젊은이들에게 적지않은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흔히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은…」이라는 전제로 우리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忍一時之憤이면 免百日之憂이어라.